

윤석열·한동훈 ‘빈손회동’에 국힘 계파 갈등 격화

친한 “추경호 만찬, 갈라치기 아니냐”
친윤 “야 입법 공세에 단일대오 해야”
추경호 “반헌법적 특검법 막아낼 것”
한 “민심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당 정 관계가 악화되고 계파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22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대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것”이라며 “계속 말씀드렸지 않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회동) 이후에 전화를 많이 받는다. 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 잔디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원들로부터도 받고, 원외당협위원장들로부터도 받고, 의원들과 통화하면 다들 분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법안이 통과된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 나와 “한 대표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박정훈 의원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한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

담이 예정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거기서 논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친한계 텔레그램 단체방에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면담 직후 따로 만찬을 가진 사실을 알렸다.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 면담 직후 추 원내대표를 대통령실로 부르는 건 ‘갈라치기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는 지금은 단일대오로 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서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친윤계는 애초부터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회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병구 의원은 이날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빈손회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남북정상회담 하듯이 답만 짓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니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이 분열하면 공멸이다. 지금은 단일대오로 야당의 입

법 폭주와 파상공세를, 탄핵까지 얘기하는 마당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만찬을 가진데 대해, 한 대표를 의도적으로 홀대하면서 추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힘을 모아 반헌법적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당선 사례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 이후 첫 발언을 내놨다.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반응이 안 좋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윤·한 맹탕면담서 뜬구름만 잡아”

“김건희 구하기 윤심만 확인”
“특검으로 민심 따라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 결과를 고리로 한 대표를 겨냥해 “김건희 특검법으로 민심을 따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

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어제 면담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맹탕이었다”며 “국민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뜬구름만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제 열린 면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였지만 김건희 특검 수용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서로 각자 말만

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과 국정농단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는 뜻을 비쳤다”며 “한 대표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법으로 민심을 따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커녕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청산,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등 한 대표의 3대 요구가 모두 묵살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 구하기보다 권위 구하기

에 더 진심인 윤심만 또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한 대표가 흔쾌히 응했다”며 “의료대란부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 등 촌각을 다투는 의제들부터 내놓고 논의하자”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단한 성과물을 가져올 것처럼 떠들썩했는데 그러나 남은 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세 가지 제안을 했다는 사실뿐”이라며 “제안 내용도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타개하는 방법은 정공법”이라며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민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 간 회동 의제와 관련해 “의대 정원 문제 등 의료대란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고 그 후 민생 문제도 논의하겠지만 ‘명태군·강혜경 상황’ 속에서 질여겨가는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해법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준호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 지연 안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통과 구간인 동광주~광산 IC 구간 확장공사의 착공 지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호남고속도로 광주 통과 구간의 확장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함 사장은 “재원 분담 문제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총사업비 분담 협약(국비 50%, 시비



50%)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분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실질적인 착공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 도로국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주도하고, 도로공사에서도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의지를 가지고 내년 초에는 문제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친명계 모임 “정치검찰, 위증교사 증거 짜집기”

토론회서 “이재명은 무죄”

더불어민주당내 ‘친명계(친이재명)’ 의원들이 22일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증거를 짜집기,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위증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의원들은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증거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이 대표 간 통화내용이 이 대표에 불리하게 편집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된 것이며 무죄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포럼 부대표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30분 통화 녹취록이 위증교사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데, 검찰은 이 내용을 30분에서 7~8분 정도로 축약하고 편집해서 결심 공판에 제시한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교묘히 짜집기를 한 거다.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구백 포럼 대표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 혐의가 되고,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죄가 되는 일은 이제 있어선 안 된다”며 “무능한 정권의 폭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일치된 단결과 감시와 견제의 눈초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김선욱 기자

문금주 “배추값 폭등, 정부·aT 늦장 대응”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여름 배추 폭등은 정부와 aT의 늦장 대응,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인재”라고 질타했다.

지난 21일 현재 배추 포기당 소매가(상품)는 9162원으로, 17일 이후 다시 9000원선을 넘어섰다.

전년 5103원 대비 79.54% 급등했다.

문 의원은 “aT는 배추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지난 9월25일에서야 ‘여름배추 긴급 수급안정대책 정부수매 세부추진계



획’을 마련했다”며 “배추가격 위기 심각 단계가 9월4일부터 시작했지만 20여 일 동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여름배추의 심각 단계의 작형별 등락률 기준이 79%나 된다”며 “심각 단계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어, 배추가격이 이미 크게 폭등한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홍문표 “쌀 편중 식량관리체계, 5곡 육성체계 전환”

농해수위 국감서 밝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2일 “식량의 무기화 및 안보 개념으로 쌀에 편중된 식량관리체계를 주요 식량작물인 5곡(쌀, 밀, 콩, 옥수수, 보리) 육성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신념으로 6대 새로운 정책 변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반사업 확충과 농어민의 안정적 생산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공사 주체로 기후변화 특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준비된 정책을 공청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배추 등 농산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의 장기저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품목 및 산지 거점별 CA 저장기술 등을 활용한 저온비축·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온라인도매시장 정착을 통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사계절 농업 촉진에 대한 공사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산업 육성과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을 통해 한국식품 영토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통계농업을 통해 생산, 유통, 가공의 안정성 확보와 예측 가능한 농수산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